

# 탄소중립 실현 · 기후위기 극복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것”

### 시민단체 연석회의체 구성... 20대 대선, 기후 대선으로 만들어 백만행동 표명

‘말이 아닌 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해 백만 국민행동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전북도당 선대위 탄소중립위원회와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전북행동 등 시민단체가 연석회의를 조직해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탄소중립 운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안호영 상임공동위원장과 김택천 상임공동위원장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도 탄소중립위원회 연석회의의 출범 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미래 세대에 온전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당과 시민단체 등 연석회의체는 내년 1월 탄소중립 전북행동을 출범해 백만의 만남, 천 개의 제안, 10만의 약속을 공동의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안 의원은 “탄소중립 백만 국민행동은 과거를 위한 대선이 아닌 미래를 위한 대선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 기간동안 전북을 탄소중립 백만행동의 대표선수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지구를 위한 당면과제”라며 “재만금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기술, 운송기술은 미래 전북도의 주요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택천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정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안호영 상임공동위원장과 김택천 상임공동위원장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도 탄소중립위원회 연석회의의 출범 간담회를 가졌다.

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시민들의 실천이 모아질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시민 플랫폼은 이재명 후보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플랫폼이고, 대선 이후에도 탄소중립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며 시민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민사회의와 거버넌스를 목표로 연석회의체를 준비해왔으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탄소중립 백만 국민행동과 시민주도의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전북행동이 연석회의체인 탄소중립 전북행동을 내년 1월에 출범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상임위원장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김성환 국회의원)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선언을 통해 “사회적

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실현해 미래세대에 온전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강국을 만들 것, ▲탄소중립과 그린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것,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낼 것,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위원회는 “탄소중립을 능동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공평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

# 정파 초월 확실한 정권재창출 의지가동

### 윤준병 의원-민주 정읍·고창 지역위, 대선 선대위 구성 의결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해 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당원 모두가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며, 출범하는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대선 선대위위원회는 민주당부 제4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부를 떠나 뜻을 같이하는 범여권 인사들을 참여시켰다.

또한 현직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후보자들도 선대위원으로 모두 참여시켜 지역 민



심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참병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선대위에는 상임선대위원장에 윤준병 국회의원, 공동선대위원장에 정읍은 강광, 김생기 전 시장 고창은 박우정, 이강수 전 군수를 위촉했으며, 정읍 상임총괄본부장에는 최중필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순자 전 서울시의원, 고창 상임총괄본부장에는 고안규 전 민주당 고창사무소

사무국장, 공동총괄본부장에는 김인호 전 고창부군수와 이동경, 문규환 씨를 위촉했다.

또한 기능별 본부장과 구별별 본부장에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군수 출마예정자와 현직 지방의원 및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을 안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중앙당으로부터 승인되는 대로 임명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윤준병 위원장은 이번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정파를 초월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부 제4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어려운 이웃 위해 사랑나눔 실천

### 공명이사랑나눔회 사랑의 연탄 기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사랑나눔회’가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나눔을 실천하고자 ‘전주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 1,500장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명이사랑나눔회’는 도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연탄배달, 불우이웃 성금전달, 자매결연 복지시설 후원 등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증가에 따라 평소 해오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할 수 없어 연탄을 기부하는 것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사랑나눔회’가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나눔을 실천하고자 ‘전주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 1,500장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로 대신했다. 공명이사랑나눔회 김재찬 회장은 “우리 위원회 직원들의 사랑이 담긴 연탄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

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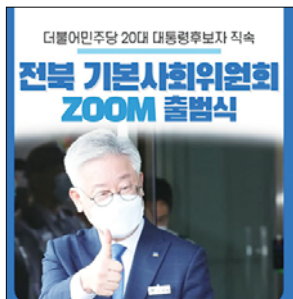
# “삶 전반 걸쳐 기본이 강한 민주정부 건설 최선”

### 대통령후보자직속 전북기본사회위원회, 도내 조직 정비 선거운동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사회’를 핵심 가치로 한 ‘전북기본사회위원회’가 도내 조직을 정비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후보자직속 전북기본사회위원회(상임위원장 이원택, 상근위원장 현양환)는 도내 기초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22일 온라인(zoom) 출범식을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기본사회위원회는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울기본권은 물론 일자리와 육아, 휴식 등 삶 전반에 걸쳐 기본이 강한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북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이어서 티브 확산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기

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울(乙) 기본권 본부와 지문위원, 전문위원이 함께하는 온라인 강연과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한 캠페인을 발굴하고 진행해 기본사회를 홍보하며, 이재명후보의 대선 승리의 기반을 전북에서 확고히 다질 예정이다.

한편 ‘전북기본사회위원회’는 14개 시·군위원회로 구성되며, 전북기본사회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원택 국회의원이 상근위원장으로 현양환 기본소득국민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가 맡는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로 ICT 전문인력 키워야

### 전북연구원,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제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ICT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가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22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전북형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제안했다.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협업체에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해당 학과 학생은 재학 중 다양한 인턴십과 현장 실무를 통해 현장 맞춤형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만성적 실무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연계형 계약학과가 시행되고 있다.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는 성균관대와 삼성의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연세대와 삼성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고려대와 SK의 반도체공학과로 운영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다양한 대학원 석사과정을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로 운영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ICT 기술로 전제했다. 연구원은 전북형 뉴딜의 성공 전제

조건을 ICT분야 전문인력 확보로 설정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ICT분야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양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 지역 차원의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내에 데이터 직무 종사자 1만 2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브리핑을 작성한 최은규 연구위원은 “취업연계형 계약학과로 전북형 뉴딜의 성공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입시키고, 도내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